

제1과

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

시작하는 말: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,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을 것이다.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목적에 맞도록 사는 것이 참으로 바람직한 일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! 이제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연구해 보자.

1.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.

[창1:1]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.

[롬4:17]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.

[시50:1]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.

[시33:6,9]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/ 9 저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으며 명하시매 견고히 섰도다.

● 아무 것도 없는데서,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부르심으로 세상을 있게 하셨다.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만상이 된 것이다.

2. 하나님이 처음으로 불러낸 세상은 심히 좋았다.

[창1:31]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.

[시8:9]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.

● 지금도 천연계는 아름답다. 사람이 땅을 망하게 하고 더럽게 했어도 아직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다. 그러나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눈에 심히 좋았다. 그 아름다움이 어떠했겠는가! 그런 세상을 사람에게 주셨다. 사람은 그것을 잘 관리했어야 했다.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하셨다(창2:15).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지키는데 실패했다. 지금도 그렇다. 소위 개발을 위하여 천연계를 자꾸 파괴하고 있다. 소위 지구에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이다. 장차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(계11:18).

3. 그러나 천연계의 아름다움은 아직 있어도 지금의 세상 형편은 아름답지 않다.

[창3:17,18]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

[창6:5]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.

[창6:12]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.

[롬8:22]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.

● 죄로 인하여 세상은 고통과 슬픔과 사망의 세상이 되었다.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질서와 법칙이 변질 되었다. 이렇게 된 세상을 “사망의 음침한 골짜기”(시23:4)라고 표현하였다. 생명과 사랑이 주장하던 세상이 사망과 투쟁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.

4. 비록 그렇지라도 세상은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이다.

[사46:10]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.

[시 33:10-11]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11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히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.

● 여기 “모략”이라는 말과 “도모”라는 말은 다 히브리어 “에차(עצה)”를 번역한 말이다. 모사 또는 방책이라는 말이다. 더 쉽게 이해하려면 계획 또는 의논이라고 말할 수 있다.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짜고 의논을 할지라도 결국 일의 성취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.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었어도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그대로 될 것이다.

5. 결국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.

[계 11:15]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.

[단2:44]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.

[시37:9-11]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10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

리로다 11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.

●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.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사람이 차지할 것이다.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회복되는 세상에 들어갈 수 없다.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,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되어 있다.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을 수 없다. 만일 회복하지 못했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뿐이다.

롬 8: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.

6. 하나님은 이러한 자기 계획을 사람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다.

[암3:7]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.

[사46:10]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.

[사41:21-23]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아굽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22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의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23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 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.

[요13:19]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.

[요14:29]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.

●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밝혀놓으셨다. 우리가 전에 공부한 대로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이 모든 것이 이미 들어 있다.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하셔서 창조의 목적을 원래대로 성취하실 것을 그 선지자들에 계시로 주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다.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다.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여 하나님의 이 황송한 구원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있고 시대를 따라 합당하게 대처할 수 있다.

7. 세상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 될 것을 다니엘에게 미리 계시해 주셨다.

[단2:19]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.

8. 다니엘에게 보여준 우상으로 표상된 것은 세상 미래의 역사이다.

[단2:29]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 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.

[단2:37-43]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38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,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무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39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넷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40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숴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같이 그 나라가 못 나라를 부숴뜨리고 뿔을 것이며 41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42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숴질 만할 것이며 43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.

9. 이 세상 역사의 끝에 이 세상인 지구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.

[단2:44]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.

10. 이 계시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돌로 표상 되었다.

[단2:34,44,45]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받을 쳐서 부숴뜨리매/ 44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.

● 뜨인 돌이 금 은 동 철 진흙 우상을 부수고 태산을 이룬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가 돌로 표상된 것을 알게 한다.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돌로 표상하였다.

[벧전2:4]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.

[고전10:4]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.

● 그러므로 다니엘의 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. 역사의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지구에 건설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.

11. 다니엘 2장의 우상의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몇 가지 측면을 가르쳐 준다.

- 1) 하나님 나라의 성립=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적으로 성립된다.
- 2) 하나님 나라의 위치=하나님의 나라의 위치는 지구이다.
- 3) 하나님 나라의 주권=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.
- 4) 하나님 나라의 연한=하나님의 나라의 연한은 영원하다.
- 5) 하나님 나라의 국민=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질을 가진 자들이다.

12.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모집하고 있는 기간이다.

[마24:14]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때가 끝이 오리라.

[고후6:2]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.

[골1:13]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.

13. 사람에게 시간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. 우리는 지금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기를 확정해야 한다.

[약4:14]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.

[눅12:20,21]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?

[눅13:24,25]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25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.

[히3:13]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을 면하라.

[벧후3:9]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.

● 주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

때문이다. 주어진 기회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산 돌이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.
[벧전2:4,5]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5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.

마치는 말: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. 그러므로 그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립해 놓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. 우리는 지금 아직 우리 생명이 있는 동안 이 초청에 응하여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도록 준비하자.